

## “자활로 제2의 인생 살아요”

### 전국 최초 자활사업 기능경연축제 4일 열려

두 아이를 낳고 한 남자의 여자로서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던 A씨. 그러나 A씨는 보증을 잘못 서 시댁 식구들과 마찰을 빚게 됐고, 4년전 막부가 내로 가족들과 바다 건너 제주도에 발을 들였다. 세계 짙이 지나 자활센터와 연을 맺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효도를 제대로 못한 친정 부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며 진정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가진 자



△아이사랑사업단 베이비시터 참가자들이 아동들이 먹을 간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A씨가 누군가를 도와주며 마음의 부자가 된 것이다. 현재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A씨는 자활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제1회 자활사업 기능경연축제 자활수기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A씨의 이야기다. A씨는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도 자신이 가

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A씨처럼 지난날의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한마당잔치가 오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제주시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기능을 한단계 높

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활사업 기능경연축제를 마련한 것. 이날 개최되는 기능경연축제에서는 ▲아름다운 손길 명인(名人)전 ▲클린서비스 고수(高手)전 ▲재활용 리폼 아트 컬렉션 ▲웰빙도시락 요리 경연 등을 통해 ‘자활명인(名人)·명품(名品)’을 선발한다.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수상자에게는 재래시장상품권이 주어진다.

돼지씨름과 대동놀이 등 전래놀이 한마당과 민요패 소리와의 축하공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의 장기자랑 등 문화공연 등 어울림마당도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자활수기와 자활홍보물을 전시한 ‘자활 풍경茶房’ 부스가 행사장에 설치되며, 자활사업 단별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자활상품관, 북아트 등을 전시·판매하는 아트프리마켓, 어린이 청소년평화시장, 재활용 참여마당 등이 마련된다.

이날 개최되는 기능경연축제에서는 ▲아름다운 손길 명인(名人)전 ▲클린서비스 고수(高手)전 ▲재활용 리폼 아트 컬렉션 ▲웰빙도시락 요리 경연 등을 통해 ‘자활명인(名人)·명품(名品)’을 선발한다.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수상자에게는 재래시장상품권이 주어진다. 돼지씨름과 대동놀이 등 전래놀이 한마당과 민요패 소리와의 축하공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의 장기자랑 등 문화공연 등 어울림마당도 진행된다.



△9월 25일 개막된 ‘2008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숍’에서 강박상 제주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전국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 ‘성황’

### 1200여명 참가...공공복지학술대회 등 열려

제주시와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해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2008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숍이 9월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해 창의적 복지업무 수행능력을 키우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치단체간 복지서비스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나누자는 취지에서 9월 25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1200여명이 참가했다.

첫날인 25일에는 공공복지 논문·정책제안 발표 및 일본 공적부조연구회 논문 발표 등 공공복지학술대회가 열렸으며, 26일에는 능동적 복지정책과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강, 새내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기간 세계자연유산 문화탐방도 했다.

#### 사회복지아카데미 10월 교육 안내

**전산회계시스템 실무교육**  
일시 : 10월 4일(토) 14:00~18:00  
내용 : 전산회계시스템 운용실무 (전산회계자격증 취득 지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교육**  
일시 : 10월 14일(화) ~ 15일(수) 09:30~17:30  
내용 :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육성 코칭스킬 프로세스 성과극대화 코칭 리더쉽 등

#### 지면소개

- 종합 ..... 2·3면  
60세 이상치매 무료검진  
시설탐방국제계정문화원
- 사회복지소식 ..... 4·5면  
아름다운 동행·소식마당  
한마음축제 감사의글·일림마당
- 오피니언 .....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 7면  
윤석용국회의원 특강

## 제4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제주지역의 각종 사회복지 분야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모색을 위해 2008년도 테마기획지원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희망제주 복지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1주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발제자: 변 용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자: 고 현수 정책지원위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 경미 소장(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제2주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발제자: 전 영록 교수(제주관광대학교사회복지과)
- ▣토론자: 고 승한 연구위원(제주발전연구원)  
고수희 부원장(평안전문요양원)

- 일 시 : 2008. 10. 10(금)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삼다수홀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자 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포럼 개최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T. 702-3784



# 2010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무료검진

## 저소득층에는 약제비 등도 지원 복지부, 치매관리종합대책 발표

오는 2010년부터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자신이 치매에 걸렸는지 여부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약값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쿠폰)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대책을 통해 지난해 3.7%였던 치매 조기 검진율을 2012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치매의료관리비율도 34%에서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우선 치매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현재 전국 118개 보건소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 치매조기검진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가 추가되고,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이 가능한 60세에도 추가로 실시한다.

조기 발견된 치매 환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국가치매등록관리DB'를 구축해 치매환자에 필요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매등록관리사업(DB구축)'은 한국치매협회에 위탁해 추진중이다.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게는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치매환자의 치료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문화·특성화된 치매시설로 개발한다.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국가의 치매 예방·치료 관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치매예방수칙 등 지식·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할 국가치매사업추진단(가칭)도 설치·운영된다.

복지부는 또 중앙단위의 치매센터(국립치매센터)와 권역별 치매센터(치매거점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지역별 치매센터(치매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

### 치매 예방의 5가지 행동수칙

- 1 고혈압·당뇨·고지혈증·비만·흡연주의
- 2 주2회 이상, 30분 넘게 땀 날 정도의 운동
- 3 적극적인 두뇌 사용
- 4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우울증과 외로움 극복
- 5 뇌 건강에 좋은 야채, 과일, 저지방·저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여 체계적인 치매 예방·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12년까지 26만명으로 늘려 치매환자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보급 등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치매 홍보활동을 하는 '치매서포터즈'를 2012년까지 10만명 가량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가차원에서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상담원이 영상전화를 통해 수화통역 상담을 하고 있다.

## “이젠 영상전화로 수화상담 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의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각·언어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기간(9월 18일~9월 30일)을 거쳐 10월 1일부터 영상전화를 이용한 수화상담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70-7947-3745~6으로 전화하면 수화통역 상담원과 상담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화상담서비스 제

공으로 그 동안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www.129.go.kr)에서 '인터넷채팅상담'을 이용하던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는 2005년 11월 개소 이후 보건복지 정책관련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긴급복지지원, 자살, 노인·아동학대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 “함께 낳아서 함께 키워요”

### 제주도, 출산장려 UCC 20일까지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낳아서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제주'를 주제로 한 출산장려 UCC(User Created Contents)를 공모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도내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순수 창작 동영상을 비롯해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한 상영시간 2~3분 정도의 영상물을 MPEG, AVI, WMV, SWF 형식의 CD로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 정지 이미지 1컷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제주도지사 표창과 상금 200만원이, 우수상 1명에게는 제주도지사 표창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입선 6명에게는 제주도지사 표창과 상금 30만원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제주도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및 다중이용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돼 출산장려 홍보 등에 활용된다.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범사회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독거노인가구 무료 방제서비스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관장 임철남) 친환경방제서비스사업단은 지난 8월~9월 2개월간 서귀포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 80여가구를 방문해 바퀴벌레와 모기 등 해충방제, 침구류의 진드기제거 및 소독 등 무료 방제서비스를 실시했다.〈사진〉



친환경방제서비스는 지역사회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하나다. 서비스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80%(월 평균소득 282만 6000원, 4인 기준)이하 가구 중 천식, 아토피 피부염 질환이 있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다.

문의=763-8219.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 모든 지역에 걸쳐 골고루 실시한 이번 무료방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신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정읍 상모리 강모 할머니(82)는 “바퀴벌레가 들끓어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바퀴벌레가 안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 중인

##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

### 주소지동주민센터 등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 노인 6만2986명의 70%(약 4만41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

금 3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부부는 월 소득 108만8000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소득 68만원이

다. 이는 올해 64만원과 40만원보다 완화된 것.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 632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억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어 가급적 오는 24일 이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道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박한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9월 4일 서울올림픽파크 호텔에서 주최한 '2008 전국 청소년상담자 대회'에서 청소년 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 전화 1388, 대안교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고

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과 52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설탐방

(11) 국제가정문화원



# 다문화가정 '사랑방' 역할 특특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개원한 국제가정문화원(원장 임정민·이하 문화원), 16년전 국제결혼을 한 임 원장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 10년이 넘는 자원봉사와 2년여 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1월 29일 하귀농협에서 100여평의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사업(한국어 교육, 컴퓨터교실, 가요교실, 웃음치료성교육, 경제교실, 영어교실, 한자교실, 생활공예, 민요교실, 다문화 이해 등) ▲자조모임(다문화 체험-요리, 문화, 언어, 노래, 풍물, 생활공예, 육아 등) ▲지역문화체험(오일장 견학, 하나로마트 견학, 수석 전시회 등) ▲다문화가족캠프 ▲한국어말하기대회 ▲다문화자녀 물놀이 ▲고향방문사업 ▲합동결혼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외에 ▲평생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인 '개구리 멀리뛰기' ▲정보진흥원 지원사업 '고령화 정보화 사업' ▲청소년과 함께하는 '이젠 나도 제주 사람이유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초등학교 4학년)가 '책종이 접기' 강사로 나서 주민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기를 살려 자신감 향상은 물론 희망을 심

## 가족캠프·한국어말하기대회 등 프로그램 다채 "원스톱시스템 갖춘 다문화 복지센터 운영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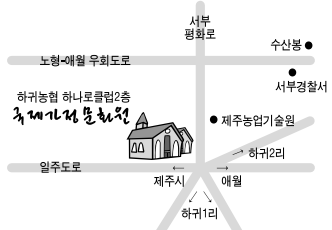
어주고 싶다"고 임 원장은 말했다. 문화원 직원들은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문화원을 찾는 주민이나 이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원은 이주민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알선도 하고, 대책마련

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결혼 전 결혼대상자 사전교육과 다문화가정 상담사 및 통역사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임 원장은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임 원장은 "표현 그대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 상담소, 일자리창출, 결혼사전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 모든 일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복지센터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작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742-5641. <조순옥 명예기자>



# 한월자·유양선씨 김만덕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9회 김만덕상' 수상자로 한월자(58·봉사부문)씨와 유양선(75·경제인부문)씨를 선정했다.

봉사부문 수상자 한월자씨는 1984년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시작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요양원 봉사, 저소득층 노인세대 난방용 등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의 학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돌보기 등 2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소중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경제인부문 수상자 유양선씨는 시장에서 젓갈장사를 하며 한평생 어렵게 모은 귀중한 재산을 학교발전기금으로 흔쾌히 기증하고 장학회를 설립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양성 및 어려운 이웃돕기에 헌

신 하고 있다.

이번 수상대상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개 모집,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관련 기관·단체 등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한편 김만덕상 시상식은 오는 3일 만덕제 봉행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한월자씨



유양선씨

# 풍성한 가을애 장애인 이 즐겁다

## 장애인 체육행사·체험프로그램 다채

결실의 계절 가을과 10월 체육주간을 맞아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9월 26일 '2008 제주시 지체장애인 사회학습체험'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제4회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제주기행'이 열렸다.

체육주간인 10월을 맞아 오는 8일에는 제2회 서부지역 장애인 론 볼링대회가, 9일에는 제5회 지적장애인 요리대회가 열린다. 체육의 날인 15일에는 제7회 제주시장애 장애인 볼링대회가 개최된다.

지체장애인 제주시지회가 주관한 '제주시 지체장애인 사회 학습 체험활동'에서는 지체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건강증진 및 재활과 자립의 기반을 제공했다.

인터넷신문 미디어제주가 주관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제주기행'에는 장애인과 장

애인가족, 비장애인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서로에게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열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서부지역 론 볼링대회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등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150여명이 참가해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물론 장애인 상호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지적장애인 요리대회는 '나도 이젠 요리왕'이라는 주제로 지적장애인 150여명이 참여한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제7회 제주시장애 장애인 볼링대회는 체육의 날인 10월 15일 제주시 에이스볼링장(옛 상록볼링장)에서 열려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장애인 체육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제주정신요양원 '더 쾌적한 환경으로...'

제주정신요양원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한다.

제주정신요양원은 정신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5억원을 지원받아 낡은 생활관(보호병동) 1개동을 철거한 뒤 지상 3층 1333㎡ 규모로 개축한다.

내년 2월 완공되는 이 시설에는 생활실과 재활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상담실 등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신장애인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이 제공돼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이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함께 걸어주는 이가 있어 행복”

## 27일 제4회 ‘아름다운동행, 함께하는 제주기행’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 식 공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미디어제주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의 하나로 ‘아름다운 동행’이 나섰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부터 아름다운 동행자로 나서므로써 사회차별을 없애고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제주기행’을 마련한 것이다.

9월 27일 미디어제주(대표 이사 윤철수)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종)가 공동주관한 제4회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기행’에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사진>

올해 들어서만 두번째 이뤄진 이번 ‘아름다운 동행’은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민속촌박물관과 몽골리안 마상쇼 공연이

펼쳐진 제주조랑말타운을 탐방하는 코스로 마련됐다.

네번째 동행 참가자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은 때문인지, 저마다 남다른 감회를 표했다.

동행에 참가한 오경림 할머니는 “오랜만에 야외에 소풍을 나오니 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곳은 예전에 우리가 살던, 사용했던 생활양식들을 모아 놓고 있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며 “우리는 오고 싶어도 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주민속촌을 방문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만족을 했지만 드넓은 제주민속촌박물관 관람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관람동선이 길어 걷기 불편한 이들은 민속촌내 관광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러면서 1시간여 동안 계속된 민속촌 관람은 웃음꽃속에 마무리됐다.



이어 성읍민속마을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기행단은 국내 유일의 몽골리안 마상미예공연을 보기 위해 ‘제주조랑말타운’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린 소년부터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등으로 구성된 마상미예단의 공연을 보는 내내 함께한 동행자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 했다.

마상공연을 처음 본 김종원 할아버지는 “공연이 너무 재미있다. 어린 아이들이 말에 거꾸

로 매달려 묘기를 부리는데 너무 신기했다”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면서 “하루 동안의 짧은 만남이지만 좋은 추억을 남겨줘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현경애 명예기자>



## 전동휠체어 보관소 설치

아라중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아라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보관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에 전동휠체어 보관소 6곳을 설치했다.

보관소 설치로 전동휠체어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보관소 6곳에서는 전동휠체어 18대를 보관할 수 있다.



## 제주환경사랑연합회 사진 촬영

제주환경사랑연합회(대표 홍순병)는 지난 8월 제주양양원·제주요양원을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 4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영정사진)을 촬영한 뒤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지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도와줬다.



## 노인전화사기 예방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은 최근 노인을 상대로 전화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연계해 9월 17일 조천상동경로당에서 노인전화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탐장복 로비에ATM 설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아)은 9월 11일 제주은행 남문지점(지점장 김상범)과 연계해 장애인을 위한 현금자동지급기(ATM)를 복지관 로비에 설치했다. 복지관에 현금자동지급기가 없어 장애인 및 복지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ATM 설치로 재활프로그램 이용은 물론 간단한 은행업무까지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 소/식/마/당

### 전세웅군, 특수교육정보화대회 우수상



제주영송학교 전세웅군(중학부 3)이 9월 9~10일 대구에서 열린 제6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4회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에 참가해 발달장애 워드프로세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능력 신장 등을 위해 개최됐다.

### 추석절 장애인 독거노인 위문



사회복지법인 준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추석을 앞두고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 독거노인 5명에게 원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이 행사는 경로효친사상,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생정신을 일깨우는 재활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 안덕면장애인지원협의회 발대식



안덕면(면장 강용식)과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9월 9일 안덕면사무소에서 안덕면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유봉성) 발대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안덕면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역내 65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 창암재활원, 한림공원 나들이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9월 7일 제주시청무한사랑봉사회(회장 김연옥)의 후원으로 아동 23명과 한림공원 나들이를 실시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들이에 앞서 제주시청무한사랑봉사회는 창암재활원과의 협약식을 통해 아낌없는 후원을 약속했다.

### 순복음복지관, 화북교에 장학금 전달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재필)은 9월 8일 화북초등학교(교장 박두윤)를 방문, 저소득 및 위기가정아동 10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부터 저소득 및 위기가정아동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순복음복지관은 제주시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제주장애인요양원 문화체험 실시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영)은 9월 18일 손뜻모아봉사회(회장 이옥련)의 지원을 받아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원생들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아프리카박물관을 방문, 평소 접하기 힘든 아프리카의 전시물과 공연을 관람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오늘도 희망을 품고 복을칩니다

‘2008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혜재활원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지난 1년간 땀 흘리며 준비한 과정을 담은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한마음축제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정혜재활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9월 5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 ‘한마음 축제’ 영예의 대상은…… 참가번호 13번!!! 정혜재활원”

‘참가번호 13번……’이 불러지는 순간!! 편마비로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던 경O님의 손이 하늘을 향해 번쩍 올라갔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으셨던 동O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잘했노라’고 서로 기쁨의 악수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정혜재활원이 영예의

대상이라니. 가슴 벅찬 기쁨, 감동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시간들과 공연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타복 받침대도 없이 사물놀이 북만을 바닥에 놓고 난타를 배우던 첫 날, 불편함도 모른 채 그저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설렘 하나만으로 복채를 잡았던 그 때, 불의의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반신불수의 장애로 수저질이 힘겨워 즐겁고 행복해야하는 식사시간이 늘고 통스러웠던 경O님, 동O님, 성O님…… 난타에 참여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소고를 치는 시간만큼은 고통도 있으신 채 환하게 웃으시며 그저 열심히쳤죠.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병마와 싸우시면서 그 좋아하는 나들이 발걸음이 힘겨워 아무런 희망도 없는 듯 그저 방안에 누워만 지내시며 식사조차 거절하셨던 공O님, 뼈가 약해 손가락이 골절되어 깎스한 상황에서도 난타시간 만큼은 아슬아슬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도 힘든 내색도 없이 하루 3시간을 선 채로 여느 분들 못지않게 당신의 온 힘을 다해 복을 치셨죠.

난타시간 만을 기다리며 ‘선생님 난타 언제 해요?’, ‘오늘 난타연습해요?’ 몇 번이고 확인해 가며 손꼽아 난타시간을 기다리던 은O, 보O, 경O, 지

O님. 난타연습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악기들을 챙겼던 원O님, 석O님. 항상 불만과 투정으로 잔소리만 하시던 옥O님. 난타시간만큼은 두 입을 굳게 다부신 채 묵묵히 박을 치셨죠. 난타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고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댄스팀의 기본 굴곡이 심한 완O님, 턱중세로 자해를 일삼는 수O님, 분노를 억제하기 힘든 해O님,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 안O님, 모두 한마음이 되어 연습하고 또 연습했지요.

손동작 하나 배우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또 다른 동작을 익히는데 또 여러 달이 걸리고, 난타의 가락에 춤동작을 맞추는데 또 한달이 걸리고…….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연습했는데, 9월 5일은 우리 가족분들이 마음껏 소리내어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화이팅’을 외치며 결의를 다졌던 그날, 관중석에 정혜재활원 가족분들과 한마음이 되었던 그날, ‘대상’ 수상이라는 가슴 벅찬은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감동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분들은 희망과 기쁨을 가슴에 품으며 복을 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 알림/마당

### 5일 학생문화원서 전도수화경연대회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제12회 전도수화경연대회 ‘손짓사랑수화제’를 오는 5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수화노래, 연설, 웅변, 풍트, 연극, 동극 등의 부문에 참가가 가능하며, 대상 1팀에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에도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743-3920.



### 책 축제서 독서골든벨·체험마당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오는 18일과 19일 한라수목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3회 책 축제에서 독서골든벨과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18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독서골든벨은 초등학교 20팀(팀별 3명)을 대상으로 20권의 선정도서 중 30문제를 출제하여 최고득점을 한 팀과 개인에게 시상한다.

체험마당은 18일과 19일 양일간 한라수목원 일대 잔디밭에서 고전시집만들기, 매직풍선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필름책만들기, 도서교환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의=751-5041~2.

### 아동학대예방교육강사 모집

지역주민들이 직접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아동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이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함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문의=732-1391~2.

## 농협제주지역본부, 쌀 배분 전달식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한동휴)는 9월 9일 제주종합경기장 야외광장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가 기탁한 쌀 10kg 1000포대를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 전달하는 배분전달식을 가졌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2500만원 상당의 쌀을 제주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5월 ‘사랑을 배로 나눔’ 행사를 개최해 도내 67개 사회복지기관에 배 15kg 200상자를 기



탁했고, 지난 2006년 9월에는 제주농협인아름다운기부문화운동본부를 발족해 저소득 학생의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9000여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도장애인IT경진대회

도내 장애인들의 정보 검색 기능을 높이고 IT를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2회 KT제주본부장애 전도 장애인IT경진대회’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과 KT제주본부(본부장 이영남)의 공동주관으로 9월 10일 KT제주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105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며 IT 능력을 겨뤘다.

우수상을 수상한 정길훈(48·지체장애)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며 “앞으로 더욱 IT능력을 갈고 닦아 다음 대회에는 최우수상까지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KT제주본부와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종목을 확대해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제주 IT패럴림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주여성 내고향 맛자랑 콘테스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9월 11일 제주시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 내고향 맛자랑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필리핀,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 20여명과 그 가족,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동제주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한 송편을 만들고 4개 나라 12가지의 고향요리 만들기 등으로 진행돼 언어와 풍습이 다른 여러 나라 이주여성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져 지역사회통합 및 유대감을 느낀 뜻 깊은 자리였다.

##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여름독서캠프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황호민)에서는 지난 8월 22일~23일 독서통합놀이치료 나를 찾아 떠나는 희망프로젝트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2008 여름독서캠프’를 조천읍 교래리에서 실시했다.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숲 체험으로 불꽃오름을 찾아 식물들을 관찰하고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계곡물에 띄내려 보내며 소원을 빌고 나뭇잎을 주워 숲에 대한 느낌을 발표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또 애들아 책으로 놀자!(독서 토론 및 발표), 나도 동화 속 주인공 되어 보기(연극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 혜정원아가의 집 방문 격려



제주나누리라이온스클럽(회장 임석종)은 추석을 앞두고 혜정원 아가의 집을 방문해 직원과 생활인들을 격려하고, 중병을 앓고 있는 최승철 환자의 치료비를 기탁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칼럼

# 장애인과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김범훈  
제주일보논설위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저를 지켜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월17일 막을 내린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서 감동의 금빛 질주를 펼치며 제주인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친 홍석만 선수(33·제주도장애인체육회)가 20일 고향으로 금의환향하며 답례한 일성이다.

##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공염불'

이날 환영식장에 참석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불굴의 투지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목에 건 금메달은 금메달 중에 금메달”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나 패럴림픽이 주는 감동은 메달 획득에만 있지 않다.

장애인 선수들의 생활주변은 온통 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변한 체육시설도 이렇다 할 지원도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선수들은 오랜 기간동안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냉대를 딛고 투혼을 펼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확인했다. 메달을 땀, 따지 못했다든 이들은 장애를 이겨낸 진정한 인생 승부사요, 인간승리의 주역들이었다.

비록 '감동의 드라마'가 끝난 지 보름 가까이 지나고 있으나 지금도 우리는 이들을 아낌없이 격려하고 축하할 일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모두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반짝'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사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보다 차별과 편견, 소외와 멸시가 더 두렵고 끔찍하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하는 진정한 이웃들이다. 세계 12위권의 선진경제 국가답게 이들을 대등한 권리와 의무 주체로 보는 시각교정과 실천이 요구된다. 허나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만 해도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전환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출선 수범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이 모양이다. 지자체나 일반 기업들의 실상은 물어보나 마다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항변이 사라질 턱이 없다.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 필요

올해로 28회째인 장애인의 날(4월 20일) 슬로건은 “비켜가면 벽이 되고 다가가면 하나된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 축하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의 목표는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없고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1회성 걸치레 같은 수사(修辭)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실천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장애인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아져야 할 때다. 그래야 장애인이 행복해지고 진정한 행복한 사회가 될 터이다.

시론

# '사회복지인의 날'에 느낀 단상



한영조  
제주경찰청 사무국장

‘나눔과 실천으로 따뜻한 제주를...’

제9회 사회복지의 날 한마음축제가 9월 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근무자 등 사회복지인 1300여명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화합의 잔치였다.

그리고 한달이 됐다. 그럼에도 필자의 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 때의 모습들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었다.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와 비장애, 너와 나 구별 없이 모두가 어울림의 가득한 행복의 공간이었다. 가슴 따뜻한 사연들을 엮어 무대에 올린 공연 하나하나에는 가슴 뭉클한 감동 그 자체였다.

13개 팀이 출전해 각 팀이 엮어내는 다양한 공연 무대, 즉 백설공주를 소재로 한 공연, 아기의 탄생에서부터 나이들 때까지 굽이굽이 엮어가는 일상의 보편적인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 사회복지근무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모니를 연주하는 난타에서 태극권에 이르기까지 출연팀마다 창의적인 소재들이 선을 보였다.

## '사회의 장애'를 깨는 행사로 발전하길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갈고 닦은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손놀림, 몸동작,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모습 하나하나가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해내겠다는 강인한 힘이 솟구치고 있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뿜어내는 힘, 아름다운 의상에서 휘감아내는 동작 하나하나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하모니를 이루는 고운 목소리에서도 그 힘은 넘쳐나고 있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적장애, 신체적장애 정도는 극복하고도 남음이 충분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 공연 중에 부부의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여보 사랑해요'라는 대사는 관객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하나 되는 기쁨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노래와 탈춤 등이 공연될 때는 즐거움에 못 이긴 관객까지 무대에서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행복의 순간이었다.

이런 무대를 엮어내기 위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땀물을 흘려야 했을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반복에 반복되는 땀방울로 일궈낸 값진 결과물이다. 공연무대에 서기 위해 1년 이상 반복된 노력이 있었던 중증장애인의 이야기 등 이들의 흘린 땀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남다른 가치가 숨어 있다.

누구나 자신을 이끌 힘과 의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 무대였다. 진정한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다. 장애는 어둡고 우울한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편견에 불과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었다.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장애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는 장애인을 보지 말고 진정한 노력과 능력을 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동등한 시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사회복지인의 날이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장애'를 깨는 행사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기고

# 황금보다 값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땀방울!



신혜선  
서귀포시표선면

황금 같은 토요일 아침.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나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은 고통스런 일이다. 올해 3월 표선면에 발령을 받은 후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 아침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인해 나의 단잠을 희생해야만 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기초수급자 할머니 집에서의 봉사활동.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오물냄새와 신발을 벗고서는 도저히 들어가기조차 힘든 마루바닥을 보면서 '이런 집에서도 사람이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 싱크대는 때가 꼬장꼬장

끼어서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질 것 같지 않았고 이불과 널려진 옷가지들에서는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듯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같이 간 직원들조차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그 곳에서 두세시간을 코를 막고 열심히 쓸고 닦았다.

'내 집안청소도 이렇게는 안할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으로 참여한 이상 대충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청소를 끝내고 할머니 집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3월의 따뜻한 햇살이 유난히 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비춰왔다.

비록 땀으로 옷은 다 젖었지만 이런 경험은 평생 살면서 스스로는 하기 힘든 값지고 큰 경험이란 생각이 들었다. 온몸에 냄새가 배어 집에 가져다져 목욕탕으로 달려가야 했지만 늦잠으로 낭비했던 시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니 제대로 된 봉사

를 해 본 적이 없던 내에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해프닝으로 결코 순탄하지 않은 봉사활동이었지만 직원들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청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모두가 한가쪽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그리고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굿은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아직도 난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래도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되었는지 처음처럼 막막한 생각이 들기는 커녕 계획을 세워 세탁, 방청소, 설거지, 이불 털기 등 업무를 분담해 청소를 하는 요령까지 생겼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하나되는 마음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땀 한 방울에 더욱 값진 보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느 토요일 아침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봉사활동 체험을 위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 윤석용 국회의원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대응’ 특강

# “건설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업으로 9월 19일 윤석용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을 초청,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본지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한 윤 의원의 특강 내용을 소개한다.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이 9월 19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취약계층 위기상황시 ‘선보호 후처리’ 원칙 적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국민요양제도로 전환 필요

윤석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면서 우선적으로 OECD 중진국에 걸맞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완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중점을 둔 사회안전망 구축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용화 방안 마련을 꼽은 윤 의원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을 합리화하고, 최저생계비 계층방식 및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협력체계를 활용해

사회양극화 현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사후에 심사를 하는 ‘선보호 후처리’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취약인구집단별 지원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대상자는 65세 인구 중 요양보호가 필요한 72만명의 22.2%인 16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범위가 미흡하고, 시설 인프

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요양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장애인 연금제를 실시해 장애인의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연금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권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 ▲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 지방재정, 기금으로부터의 지원 총당 ▲급여의 종류는 비용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한부모 가정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6%인 137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나 정서적 혼란, 자녀양육의 문제, 경제적 궁핍,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녀 중 18세 이상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든 가족이 보

호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18세 이상을 제외하고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이전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자동차를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2000cc 이하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로 분류해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금 용자 등 차등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 주택구입 가액별로 차등화 지원, 주거 점유 형태별 차등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인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공평한 출발 및 교육과정 보장을 위해 현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

## 장애인연금제 실시로 장애인 소득강화해야 의료서비스 등 욕구별 사회서비스 확대 역설

상향 조정해야 하며, 현행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으로는 학업성취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원과 연계해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또 의료서비스 확대 등 욕구별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주문했다.

의료보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계층간 형평성 유지 원칙 하에 일반인에 비해 평상시 의료욕구가 월등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입원의 경우 법정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제시했다.

주거서비스 확대 방안으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다변화해 입주자 확대, 소득계층별 주거급여 지원, 주택자

보장제도를 체계화할 것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확대해 정보격차를 해소할 것 등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탈빈곤 정책으로서 지역노동시장과 연계된 취업프로그램 개발과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부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성공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구체적인 사업가이드라인 제시와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현재의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단위 공공-민간 협의구조의 새로운 모형 및 현실적합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윤석용 의원의 특별강연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소년들, 꿈과 희망을 찬다

# Happy Dream-Kick 축구대회



## 개요

- 1. 일 시 : 2008.10.11(토) 10:00
- 2. 장 소 : 제주시 노형미리내공원 축구경기장(약도 참조)
- 3. 후 원 : SK에너지(주)
- 4. 지 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10:00~10:30	개회식
10:30~11:30	축구경기
11:30~12:30	점심식사
12:30~13:30	축구경기
13:30~15:00	특별프로그램
15:00~15:30	축구경기
15:30~16:00	폐회식



## 약도

